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10 POSIDONIUS THE GENIU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Posidonius the Genius」 (원서 PDF 75~81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7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세상을 재는 눈으로 자기 자신도 다스릴 수 있는가."

포시도니오스는 스페인에서 조수를 재고 갈리아에서 켈트족을 조사했으며, 지구의 둘레와 해와 달의 크기를 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박식가라 불렸지만, 그가 끝내 보여 준 '최고'는 지식이 아니었다. 통풍으로 신음하면서도 폼페이우스 앞에서 고통은 악이 아니라고 말한 일, 곧 자기 자신을 이긴 일이었다. 공부도 같다. 많이 아는 것과 시험장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9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모든 것에서 배운다(76쪽 ¶7 ~ 77쪽 ¶2) / '최고'의 참뜻 = 덕(79쪽 ¶5~¶6) / 철학 = 살아 있는 존재(80쪽 ¶5) / 성공과 권력의 실체(78쪽 ¶3) / 자기 정복의 어려움(80쪽 ¶3~¶4)
4~5	**밑줄 함축 의미**	anxious abundance / the space between our ears / voted with his feet / a temple of the gods / the pull of this bubble / the complete man / a far cry from / ambition commanded Marius / a mindless mob / a bright light / the "North" and "South" of our souls / on the same team
6	지칭 추론	he·his가 Posidonius·Pompey 사이를 오가는 79쪽 ¶5~¶8 / Panaetius·Posidonius·Cicero가 얽힌 79쪽 ¶2 / he가 Marius·Posidonius를 오가는 78쪽 ¶1~¶2 / which가 받는 말(77쪽 ¶4)
7~8	내용 일치·불일치	연도·나이(135 BC 출생, 18~20세 출향, 117~115 BC 도착, 109 BC 파나이티오스 사망, 87 BC 말 일곱 번째 집정관, 86 BC 로마, 79 BC 키케로 27세, 66·62 BC 폼페이우스, 51 BC 84세 사망) / 52권·3분의 1 / 146~86 BC / 프리타니 / 『신국론』
9~10	**어법**	과거분사 후치 수식(born) · 사역 have + O + p.p. · It ~ who/that 강조(76쪽 ¶6, 78쪽 ¶1, 80쪽 ¶6) ·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수 일치(The only constraint was · What linked ~ was · Each of us has) · 관계대명사 what · 분사구문 convinced · in addition to + -ing · spend + 시간 + -ing 수동 · ask + O + if절 · whose · with + O + p.p. · despite + 동명사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abundance↔scarcity · disapproval↔approval · humbled↔proud · keen↔dull · crude↔precise · resisted↔yielded · repulsed↔attracted · insatiable↔satisfied · disillusioned↔idealistic · lower↔higher · radical↔moderate · more↔less impressive · interconnected↔isolated · criticize↔praise
12	빈칸 추론	the only thing we can really manage is ourselves / learn wisdom from everything / the complete man / a deficiency of character / virtue — the areas that you controlled / This triumph over pain / checks against these irrational parts / a living being / interconnected(sympatheia) / on the same team
13	문장 삽입	마리우스 임종 장면(77쪽 ¶6 ~ 78쪽 ¶2): 로도스 → 사절로 로마 → 임종 자리 → 망상 → 며칠 뒤 죽음 → 안티파트로스와 대비 / 폼페이우스 재방문과 병상 강의(79쪽 ¶7 ~ 80쪽 ¶1)
14	무관한 문장	거품을 거부한 전략가 단락(77쪽 ¶3~¶4)에 무관한 소재 끼워 넣기 / 측정과 관측 단락(77쪽 ¶1) / 역사서와 저술 목록(80쪽 ¶7 ~ 81쪽 첫 줄)
15	순서 배열	아테니온 → 다모필로스 → 아피키우스 → 성격의 결함(78쪽 ¶4~¶6) / 출향 → 아테네 도착 → 파나이티오스 → 먼 곳의 공부(76쪽 ¶4~¶6)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잊힌 이름과 오래 남은 영향, 그리고 죽음의 수용(81쪽 ¶1~¶4) /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80쪽 ¶2~¶4) / 정원 비유 → 생명체 비유(80쪽 ¶5)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8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유난히 많은 장이다(135 · 117~115 · 109 · 87 · 86 · 79 · 66 · 62 · 51 BC, 146~86 BC, 18~20세 · 27세 · 84세, 52권 · 약 500년).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이 장은 8문항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would still not admit ↔ admitted that pain was an evil, criticize ↔ praise his use of astrology, lowered ↔ raised standards, rational ↔ irrational). 부정어 · 동사 · 형용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Posidonius the Genius」 (76~81쪽)

전기형(탄생과 출향 → 박식가의 여행 → 거품 밖의 정치 → 마리우스의 임종 → 야망의 교훈 → 로도스의 제자들 → 영혼과 우주 → 유산과 죽음). 핵심 축은 **지식(knowledge) vs 덕(virtue)**, 그리고 **외적 성취(external things) vs 자기 정복(triumph over oneself)**.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6 ¶1~¶2	도입	135 BC 시리아 아파메아의 명문가 · 불안한 풍요 / 제논 · 클레안테스를 만든 것과 같은 불확실성 속의 형성기 /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신뿐 — 두 귀 사이의 영토
76 ¶3~¶4	출향	잔치와 목욕탕이 된 체육관(못마땅한 회고) · 참주들의 "술 취한 야망" / 좋은 시절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못함 / 18~20세에 아테네로 — 발로 한 투표
76 ¶5	아테네	117~115 BC 도착 · 스토아 포이킬레 = 노년의 파나이티오스 / 로마 지배층의 자녀 교육 · 한 세대 전 로마에서 루틸리우스를 가르친 그에게 아테네로 자녀를 보냄
76 ¶6	인물	로마 우등생들 가운데서도 돋보였을 재능 / 박식가 — 자연사 · 천문학 … 역사 · 윤리학 / 파나이티오스의 권유였을지도 / 이탈리아에서 근동까지 먼 곳의 공부
76 ¶7 ~ 77 첫 줄	저자의 해석	증명과 논쟁에만 관심 둔 철학자들과 다름 / 모든 것에 관심을 · 모든 것에서 지혜를 / 경험할수록 배우고, 역설적으로 더 겸손해진다
77 ¶1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박식가 / 스페인 조수 · 갈리아 켈트족 · 지구 둘레 · 해와 달 · 지구본과 태양계 모형 / 한계 = 조잡한 측정 도구
77 ¶2	교실	흙 속으로, 바다 위로 / 하늘 · 별 · 시장이 교실(제논처럼, 풀밭에 빠진 아이처럼) / 세네카: 온 세상이 신들의 신전인 듯
77 ¶3	대비	자기 머릿속에 사는 천재들 · 에피쿠로스학파는 세상과 정치를 외면 / 디오게네스 · 파나이티오스의 영향으로 거품을 거부, 정치와 통치로
77 ¶4~¶5	전략가	루틸리우스가 마리우스를 위해 훈련한 군단 / 병력 이동 · 전쟁사 · 풍습 · 첩보 / 전술 교본 · 폼페이우스의 자문 / 완전한 인간 = 진짜 철학자
77 ¶6 ~ 78 첫 줄	귀향	모든 여행자는 집으로 → 로도스 / 최고 공직 프리타니 · 통치 평의회 주재 · 철학 학교를 키움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8 ¶1~¶3	일화·물음	86 BC 사절로 로마 · 87 BC 말 일곱 번째 집정관 마리우스의 임종 / 망상 · 악몽 → 며칠 뒤 사망 / 안티파트로스와 대비 / 그래도 권력을 원하겠는가
78 ¶4~¶6	사례	참주를 꿈꾼 철학자 아테니온 / 노예들 손에 죽은 다모필로스 / 루틸리우스를 모함한 아피키우스 / 공통점 = 성격의 결함 · 마르쿠스의 '이른바 쾌락'
78 ¶7 ~ 79 ¶1	교훈	야망을 경계하라 · 군중을 피하라 · 사치는 권력만큼 썩게 한다 /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했다" / 109 BC 이후 아테네를 떠남 — "생각 없는 군중"
79 ¶2~¶3	제자	고립되었으나 지중해 교류의 중심인 로도스 / 환멸에 찬 인간 평가 / 79 BC 27세 키케로 · "우리 포시도니오스" / 직접 경험에서 나온 군중 불신
79 ¶4~¶6	조언	폼페이우스를 끌어당긴 철학 / 66 BC 해적 원정 전 · 호메로스 인용 "최고가 되어 늘 남보다 뛰어나라" / 최고 = 덕,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탁월함
79 ¶7 ~ 80 ¶1	자기 정복	62 BC 재방문 · 군기를 낮추고 절 / 관절염 · 통풍 속 병상 강의 — 고통은 악이 아니다 / 자신을 이긴 것이 '최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
80 ¶2~¶4	영혼론	정신은 지혜를, 낮은 부분은 권력 · 영광 · 쾌락을 / 습관이 견제 / 자아 전체가 이성적이라는 전통에서 이탈 / 영혼의 남북전쟁 / 마리우스 · 폼페이우스도 못 한 일
80 ¶5~¶6	비유·우주	밭 · 열매 · 울타리 → 살아 있는 존재(피와 살 · 뼈와 힘줄 · 영혼) / 우주 = 감각 있는 생명체 · 심파테이아 · 섭리 / 모두 같은 팀 · 손가락과 간 · 프네우마
80 ¶7 ~ 81 ¶4	결말	52권 역사서(저술의 3분의 1) · 146 BC 카르타고 ~ 86 BC 술라의 아테네 약탈 / 『신국론』의 비판(점성술) / 천재도 죽는다 · 51 BC 84세 평화로운 죽음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통제의 범위	예측할 수 없는 바깥 세상(an unpredictable world)	자기 자신 — 두 귀 사이의 영토(the space between our ears)
시대의 효과	좋은 시절(good times) — 잔치 · 목욕탕이 된 체육관	불확실성 속의 형성기(formative incubation in uncertainty)
철학자의 관심	증명과 논쟁만(only in their proofs or debates)	모든 것(everything) —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운다
천재의 삶	자기 머릿속 · 거품(bubble) — 세상을 외면한 에피쿠로스학파	정치와 통치에 지성을(Diogenes · Panaetius의 영향)
권력의 끝	불멸을 믿은 마리우스 — 망상 · 악몽 · 헛되었다는 두려움	안티파트로스의 평화로운 죽음 — 삶이라는 항해의 축복을 셈
누가 지휘하는가	마리우스가 군대를 지휘(Marius commanded armies)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ambition commanded Marius)
'최고(best)'의 뜻	전투의 승리 · 영예의 축적(external things)	덕 — 생각 · 행동 · 선택에서의 탁월함
고통	고통은 악(an evil)	고통은 악이 아니다 — 고통을 이긴 것 = 자신을 이긴 것
영혼의 구조	자아 전체가 이성적(초기 스토아)	이성적 부분 + 비이성적 부분(포시도니오스) — 습관이 견제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철학의 비유	밭 · 열매 · 울타리(농장 · 과수원 — 서로 분리됨)	살아 있는 존재(피와 살 · 뼈와 힘줄 · 영혼 — 떼어 놓을 수 없음)
인간의 관계	완전히 자족적 · 자율적인 개인(self-sufficient, autonomous)	같은 팀 · 우주적 공감(sympatheia) — 한 몸의 손가락 · 피부 세포 · 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osidonius of Apamea	B. 135 BC – D. 51 BC · 오늘날 시리아(Syria)의 아파메아(Apamea) 출신 · 명문가 · 발음 Po-si-DOUGH-knee-us · 장 제목 the Genius
135 BC / 시리아의 풍요	출생 연도 =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의 시작 / 생필품 걱정이 없어 잔치만 계속 · 체육관이 목욕탕으로(포시도니오스의 **못마땅한** 회고) · 지방 참주들의 "술 취한 야망"
18~20세 / 117~115 BC	**18세 또는 20세**에 고향을 떠나 아테네로(voted with his feet) · 기원전 117~115년 사이 도착
Panaetius	도착 당시 스토아 포이킬레를 장악한 **노년의** 거두(학파와 제국 모두에서) · 한 세대 전 로마에서 루틸리우스를 가르침 · 여행을 권했을지도(Perhaps) · **109 BC** 사망
polymath	자연사 · 천문학 · 기상학 · 해양학 · 지리학 · 지질학 · 지진학 · 민족지학 · 수학 · 기하학 · 논리학 · 역사 · 윤리학(**13**개 분야) ·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박식가'
공부·조사한 곳	이탈리아 · 시칠리아 · 그리스 · 달마티아 · 북아프리카 · 근동 / **스페인**(조수 측정) · **갈리아**(켈트족 민족지 조사)
측정과 모형	지구의 둘레 · 해와 달의 크기와 거리 측정 · 지구본과 (알려진) 태양계 모형 · 유일한 제약 = 당대의 조잡한 측정 도구(계산을 자주 비뚤어지게 함)
Seneca	포시도니오스는 "온 세상이 신들의 신전인 것처럼" 살았다 / 마리우스에 대한 판정을 전함 · "이런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 그들 자신이 어지러웠다"(세네카의 의역)
Epicureanism	포시도니오스 시대에 다시 일어남 · 세상을 외면하고 정치와 소음을 무시하라 → 포시도니오스는 **디오게네스 · 파나이티오스**의 영향으로 이 거품을 거부
Rutilius Rufus / 군단	마리우스를 위해 로마 군단을 훈련한 동료 스토아 · 파나이티오스의 제자 · 포시도니오스의 친구 / 병력 이동 · 전쟁사 · 풍습 · 외국 첩보 → 장군들에게 제공, 책에 사용
전술 교본	일종의 『손자병법(Art of War)』 · 너무 상세해 장군이 아니면 감당 못 할 수준 · 폼페이우스 같은 장군들이 여러 해 민족지적 통찰을 구함
Rhodes / prytany	여행 뒤 정착한 '집' · 최고 공직 **프리타니**에 올라 통치 평의회 주재 + 철학 학교 육성 · 고립되었으나 지중해 교류의 중심
Marius	**87 BC 말** 일곱 번째 집정관 · 권력이 자신을 불멸로 만든다고 여김 / **86 BC** 사절로 로마에 온 포시도니오스가 임종 자리 방문(아마 호기심 때문) · 며칠 뒤 사망
Antipater	삶이라는 항해의 축복을 세며 평화롭게 떠난 철학자 — 마리우스의 죽음과 대비(플루타르코스도 같은 대비를 함)
Athenion / Damophilus / Apicius	참주를 노린 철학자 · 재능을 버리고 군중에 의존 / 시칠리아 반란 · "사치와 악행의 노예" · 노예들 손에 비참한 최후 / 루틸리우스에게 누명을 씌운 탐욕의 괴물(응보 기대는 '상상')
교훈 / 판정	야망을 경계하라 · 군중을 피하라 · 사치는 권력만큼 썩게 한다 / "마리우스는 군대를 지휘했으나,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했다" · 마르쿠스: 참주들의 '이른바 쾌락'을 살펴보라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ochloi anoetoi	"생각 없는 군중(a mindless mob)" — **109 BC** 파나이티오스 사후 아테네를 마지막으로 떠나며 내린 판단 · 로마인도 더 낫게 보지 않았을 것(probably)
Cicero	**79 BC, 27세**에 로도스로 와서 배움 ·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재능 · 스승을 "우리 포시도니오스(our Posidonius)"라 부름
Pompey	**66 BC** 킬리키아 해적 원정 전 방문 · 호메로스 인용 "최고가 되어 늘 남보다 뛰어나라" · "거짓 영광에 대한 미친 사랑" / **62 BC**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 뒤 재방문 · 군기를 **낮추고** 절함
관절염 · 통풍	재방문 때 병상에서 "오직 명예로운 것만이 선하다"는 강의 · 신음하면서도 고통이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음** → 고통에 대한 승리 = 자신에 대한 승리
영혼론 / King	정신 = 지혜 · 참된 선 / 낮은 부분 = 권력 · 승리의 영광 · 육체적 쾌락 · 습관이 견제 · 스토아 전통(자아 전체가 이성적)에서 꽤 급진적인 이탈 / 마틴 루서 킹: 영혼의 '북부'와 '남부' 사이의 내전
철학의 비유	이전 스토아: 밭(물리학) · 열매(윤리학) · 울타리(논리학) / 포시도니오스(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전함): 살아 있는 존재 — 물리학 = 피와 살 · 논리학 = 뼈와 힘줄 · 윤리학 = 영혼
sympatheia / pneuma	우주 = 감각 있는 생명체 · 만물의 상호 연결 · 섭리 · 크리시포스의 '밀치지 않기'를 넘어 모두 같은 팀 · 손가락 · 피부 세포 · 간 · 신 = 프네우마(우주의 영혼)
역사서 / 유산	**52권** · 전체 저술의 **3분의 1** · 146 BC 카르타고(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 86 BC 술라의 아테네 약탈 / 스트라본: 폼페이우스만 다룬 별도 저술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점성술 비판 · 사후 약 500년
51 BC / 84세	평화로운 죽음 · 마리우스의 끔찍하고 비천한 최후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며 떠나는 법을 배웠으리라는 것은 저자의 **상상**(기록 없음)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Posidonius the Genius」 (원서 PDF 76~81쪽) · 7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0-1 불안한 풍요에서 아테네의 박식가로 76쪽 ¶1~¶6

원문 위치 원서 76쪽 ¶1~¶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yet another Stoic born into	과거분사 후치 수식(= who was born)
◆	¶1 첫 문장	anxious abundance	밑줄 의미: 불안을 품은 풍요
▲	¶1 둘째 문장	in what is now Syria	전치사 + what절(오늘날의 ~)
▲	¶2 첫 문장	the ideal conditions in which Stoicism emerges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 둘째 문장	the only thing we can really manage is ourselves	빈칸·요지 1순위
◆	¶2 둘째 문장	the space between our ears	밑줄 의미: 자기 마음
▲	¶3 첫 문장	made its people "free from ..."	make + O + 형용사(5형식)
●	¶3 첫 문장	with disapproval	반전 후보 → approval
★	¶3 마지막 문장	good times rarely make for great people	요지 후보
◆	¶4	voted with his feet	밑줄 의미: 떠나는 것으로 판단을 드러냄
▲	¶4	leaving his birthplace ... for Athens	분사구문 + leave A for B
▲	¶5 둘째 문장	had begun to have their children educated	사역 have + O + p.p.
▲	¶5 셋째 문장	Where Panaetius had taught Rutilius	대조의 where(= whereas)
▲	¶6 첫 문장	must have stood out	must have p.p.(과거 추측)
▲	¶6 셋째 문장	Perhaps it was Panaetius, ..., who encouraged	It ~ who 강조구문

내용

아파메아의 포시도니오스 역시 '불안한 풍요'의 시대에 명문가에서 태어난 스토아였다. 그가 태어난 기원전 135년, 오늘날의 시리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시기는 앞서

제논과 클레안테스를 만든 것과 같은, 불확실성 속의 형성기였다. 강한 지도력 없이 외세에 흔들리는 고향, 과잉과 탐욕의 위험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보는 경험. 저자는 이것이 스토아가 생겨나는 이상적인 조건일지 모른다고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정말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고, 확실하고 오래가게 정복할 수 있는 영토는 두 귀 사이의 공간뿐이라는 이른 교훈이었다. 포시도니오스는 훗날, 생필품 걱정이 없던 시리아 사람들이 끝없이 잔치를 벌였고 체육관이 목욕탕으로 변했다고 못마땅하게 회고했고, 지방 참주들의 "술 취한 야망"을 기록했다. 좋은 시절은 위대한 사람도 위대한 정부도 좀처럼 만들지 못한다. 결국 그는 다른 초기 스토아들처럼 발로 투표했다. 열여덟 혹은 스무 살에 고향을 떠나 아테네로 간 것이다. 기원전 117~115년 사이에 도착했을 때 스토아 포이킬레는 이미 노인이 된 파나이티오스의 손에 있었다. 그는 학파뿐 아니라 제국에서도 우뚝한 인물이었고, 로마 지배층은 한 세대 전 로마에서 루틸리우스를 가르친 그에게 가장 유망한 자녀들을 아테네로 보냈다. 그런 로마의 우등생들 사이에서도 젊은 포시도니오스는 돋보였을 것이다. 자료는 그를 자연사 · 천문학에서 논리학 · 역사 · 윤리학까지 관심을 둔 박식가로 그린다. 연구를 길 위로 가져가라고 권한 사람은 널리 여행한 파나이티오스였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아테네 이후 그가 이탈리아 · 시칠리아 · 그리스 · 달마티아에서 북아프리카와 근동에 이르는 먼 곳에서 공부하며 삶의 큰 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어법

- **Posidonius of Apamea was yet another Stoic born into a prominent family in a time of anxious abundance** : born ~ = Stoic을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who was born). yet another = 또 하나의. 변형 → who born은 오답(be동사가 필요).
- **The year of his birth, 135 BC, in what is now Syria, marked the beginning of political turmoil that in a sense continues to this day** : 주어 The year(단수) + 동격 135 BC + 삽입구 → 동사 marked. in what is now Syria = 오늘날 시리아인 곳에서.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urmoil) → continues.
- **Perhaps these are the ideal conditions in which Stoicism emerges** : 전치사 + 관계대명사(= Stoicism emerges in the conditions). 변형 → in that은 오답(전치사 뒤 that 불가), where는 가능.
- **It was all an early lesson that ~ the only thing we can really manage is ourselves— and that the space between our ears is the only territory we can conquer** : lesson과 동격인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 the only thing (that) we can manag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주어 the only thing(단수) → is.
- **Ultimately, he voted with his feet as many of the other early Stoics did, leaving his birthplace at eighteen or twenty years old for Athens** : as ~ did = ~가 그랬듯이(did = voted with their feet). leaving = 분사구문(= and he left). leave A for B = B를 향해 A를 떠나다.
- **Fathers from across the Roman ruling class ~ had begun to have their children educated by philosophers** : 사역 have + O + 과거분사(자녀가 '교육받게' 하다). 변형 → educate는 오답(by philosophers가 수동임을 알려 줌).
- **the young Posidonius must have stood out for his brilliance** : must have p.p. = ~했음이 틀림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기록이 아니라 저자의 추측임을 내용 일치에서 구별할 것.
- **Perhaps it was Panaetius, who had traveled widely on his fact-finding mission, who encouraged his young student to take his studies on the road** : It ~ who 강조구문(Panaetius 강조) 사이에 계속적 용법 who절 삽입. encourage + O + to V. Perhaps = 추측.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minent	저명한, 유력한	distinguished	obscure
abundance	풍요	plenty, wealth	scarcity
turmoil	혼란, 소요	chaos, unrest	calm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rmative	(인격) 형성의	developmental	—
buffet (v.)	(바람·외세가) 뒤흔들다	batter, toss	shelter
ringside seat	맨 앞자리(가까이서 보는 자리)	front-row view	—
peril	위험	danger	safety
enduring	오래 지속되는	lasting	temporary
disapproval	못마땅함	displeasure	approval
vote with one's feet	떠남으로써 의사를 밝히다	leave in protest	—
towering	우뚝한, 거대한	eminent	minor
polymath	박식가	a person of wide learning	—
far-flung	멀리 떨어진	distant, remote	nearby

내용 일치 출생 = 135 BC, 오늘날의 시리아(아파메아) · 출향 나이 = 18세 또는 20세 · 아테네 도착 = 117~115 BC 사이 · 당시 수장 = 노년의 파나이티오스 · 파나이티오스가 여행을 권했다는 것은 추측(Perhaps). **밑줄 의미** the space between our ears = 자기 마음,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 / voted with his feet =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판단을 드러냄.

> **한 줄 요약** 불확실한 풍요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신뿐'임을 일찍 배운 포시도니오스는 아테네의 파나이티오스 아래에서 박식가로 돋보였고, 먼 곳으로 공부의 길을 떠났다.

10-2 모든 것에서 배운다 — 세상이 교실 76쪽 ¶7 ~ 77쪽 ¶2

원문 위치 원서 76쪽 ¶7 ~ 77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6쪽 ¶7 첫 문장	It cannot be said that	가주어 it + that절(수동)
▲	76쪽 ¶7 첫 문장	like some philosophers, were interested only in	삽입구 like ~(~처럼)
▲	77쪽 첫 줄	the world that surrounds us which defined	관계절 두 개(that / which)
▲	77쪽 첫 줄	can and should be interested	조동사 병렬 + 공통 동사원형
★	77쪽 첫 줄	learn wisdom from everything	빈칸·주장 1순위
▲	77쪽 첫 줄 끝 문장	The more you experience, the more you learn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77쪽 첫 줄 끝 문장	humbled	반전 후보 → proud
◆	¶1 첫 문장	the greatest polymath since Aristotle	밑줄·내용 일치 후보
●	¶1 셋째 문장	keen observer	반전 후보 → dull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다섯째 문장	The only constraint ... was the crude measuring tools	주어 constraint(단수) → was
▲	¶1 다섯째 문장	, which often skewed	계속적 용법 which
●	¶1 다섯째 문장	crude	반전 후보 → precise
▲	¶2 첫 문장	got him outside	get + O + 부사(5형식)
▲	¶2 둘째 문장	as it had been for Zeno, as it is for the child	as = ~처럼(시제 대비)
◆	¶2 셋째 문장	a temple of the gods	밑줄 의미: 세상 전체를 경외함
▲	¶2 셋째 문장	as if the whole world was	as if + 과거(가정)

내용

스토아학파를 일부 철학자들처럼 증명과 논쟁에만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포시도니오스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답고 복잡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매혹, 곧 고대 스토아를 규정했고 지금도 이어지는 그 태도를 완벽하게 보여 준다. 스토아는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므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경험할수록 더 배우고, 역설적이게도 눈앞에 남은 끝없는 지식 앞에서 더 겸손해진다. 여행을 거듭하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박식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스페인에서 조수를 재고 갈리아에서 켈트족을 민족지적으로 조사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예리한 관찰자이자 자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두를 성실하게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지구의 둘레, 해와 달의 크기와 거리를 쟀고 지구본과 알려진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의 재능을 가로막은 유일한 제약은 계산을 자주 비뚤어지게 한 당대의 조잡한 측정 도구였다. 그래도 끊임없는 여행과 비할 데 없는 호기심은 당시 알려진 우주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다. 여행은 그를 바깥으로, 흙 속으로, 바다 위로 이끌었다. 제논에게 그랬듯, 평범한 풀밭에도 빠져드는 아이에게 그렇듯, 그의 교실은 하늘과 별과 북적이는 시장이었다. 세네카의 말처럼 그는 온 세상이 신들의 신전인 것처럼 살았다.

어법

- **It cannot be said that the Stoics, like some philosophers, were interested only in their proofs or debates**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It is said that의 부정·조동사형). like some philosophers = 삽입구. 곧 '스토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
- **the curiosity, the fascination with the beautiful and complex world that surrounds us which defined Stoicism in the ancient world and continues today** : the curiosity와 the fascination ~은 동격. that surrounds us = world를 꾸미는 관계절. which defined ~ and continues = 그 호기심을 꾸미는 관계절(단수 동사 continues).
- **You can and should be interested in everything, the Stoics taught, because you can and should learn wisdom from everything** : can and should + 동사원형(두 조동사가 한 동사를 공유). the Stoics taught = 삽입절.
- **The more you experience, the more you learn, and, paradoxically, the more humbled you are by the endless amounts of knowledge that remain in front of you** : the + 비교급 + S + V가 세 번 이어짐. the more humbled you are = you are more humbled(비교급 보어가 앞으로). that remain = 선행사 amounts(복수) → remain.
- **He was a keen observer and a lover of data— regardless of the discipline—and a diligent recorder of it all** : 보어 세 개(observer / lover / recorder) 병렬. regardless of = ~에 상관없이. it all = 그 자료 전부.

- **The only constraint on his brilliance was the crude measuring tools of his age, which often skewed his calculations** : 주어 constraint(단수) → was(보어가 복수 tools여도). which = tools를 받는 계속적 용법 → skewed.
- **It also got him outside, down in the dirt and out on the water** : get + O + 부사(구) = O를 ~로 데려가다. It = 앞 단락의 쉼 없는 여행과 호기심.
- **Posidonius lived, as Seneca would later write, as if the whole world was a temple of the gods** : as Seneca would later write = 세네카가 훗날 쓰게 되듯(삽입). as if + 과거(was) = 가정. 격식체로는 were도 가능.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llustrate	잘 보여 주다	exemplify	—
fascination	매혹, 강한 흥미	captivation	boredom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ironically	—
humbled	겸손해진	made modest	proud
ethnographic	민족지학의	anthropological	—
keen	예리한	sharp	dull
diligent	부지런한, 성실한	industrious	lazy
circumference	둘레	perimeter	—
constraint	제약	limitation	freedom
crude	조잡한, 대강의	rough, primitive	precise
skew	비뚤어지게 하다, 왜곡하다	distort	correct
ceaseless	끊임없는	constant	intermittent
bustling	북적거리는	busy, lively	quiet

내용 일치 잰 것 = 스페인의 조수 · 지구 둘레 · 해와 달의 크기와 거리 / 조사한 것 = 갈리아의 켈트족 / 만든 것 = 지구본 · 태양계 모형 / 한계 = 조잡한 측정 도구(재능이 모자란 것이 아님). **밑줄 의미** a temple of the gods = 세상 전체를 경외하며 배우는 자리로 여김 / the greatest polymath since Aristotle = 당대 최고의 박식가라는 평판.

> **한 줄 요약**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믿은 스토아답게, 포시도니오스는 하늘과 바다와 시장을 교실 삼아 세상을 재고 기록했다.

10-3 거품을 거부한 전략가, 완전한 인간 77쪽 ¶3 ~ 78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77쪽 ¶3 ~ 78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 첫 문장	are content to live	be content to V
◆	¶3 첫 문장	live entirely in their own heads	밑줄 의미: 생각 속에만 갇혀 삶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 둘째 문장	Many philosophies—filled with …—subtly encourage	삽입 분사구 + 복수 동사
▲	¶3 셋째 문장	encouraged its followers to turn away …, to ignore	encourage + O + to V 병렬
◆	¶3 마지막 문장	the pull of this bubble	밑줄 의미: 세상과 단절된 고립의 유혹
●	¶3 마지막 문장	resisted	반전 후보 → yielded to
▲	¶4 첫 문장	legions that had been trained for Marius by	과거완료 수동
◆	¶4 첫 문장	his fellow Stoic and student of Panaetius, Rutilius Rufus	지칭·연결: 9장의 루틸리우스
▲	¶4 둘째 문장	which he not only provided … but later used	목적격 which + not only A but B
▲	¶4 셋째 문장	so detailed that … too advanced for anyone but a general	so ~ that + too ~ for
▲	¶4 마지막 문장	In addition to becoming	in addition to + 동명사
★	¶5 첫 문장	the complete man	빈칸·밑줄 후보
◆	¶5 마지막 문장	a real philosopher	요지 후보: 행동하는 철학자
▲	¶6 첫 문장	every traveler must come home, which for Posidonius became Rhodes	계속적 용법 which(= home)
▲	¶6 둘째 문장	Putting …, he rose …, presiding … while building	분사구문 앞뒤 + while -ing

내용

자기 머릿속에서만 사는 데 만족하는 천재들이 있다. 스스로 천재라 여기는 철학자들로 가득한 많은 철학이 이런 경향을 은근히 부추긴다. 포시도니오스 시대에 다시 일어나던 에피쿠로스학파가 그 예로, 추종자들에게 세상을 외면하고 정치와 주변의 소음을 무시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포시도니오스는 디오게네스와 파나이티오스 같은 스토아의 영향으로 이 거품의 끌림을 거부했고, 좋은 스토아답게 지성을 정치와 통치에도 돌렸다. 먼 여행길에서 그는 로마 군단과 끊임없이 마주쳤는데, 그 군단은 같은 스토아이자 파나이티오스의 제자인 루틸리우스 루푸스가 마리우스를 위해 훈련시킨 군대였다. 남은 글 조각들은 그가 병력 이동과 전쟁사, 현지인의 풍습을 연구하고 외국 세력에 관한 첩보까지 모아 장군들에게 제공하고 훗날 자기 책에 썼음을 보여 준다. 그는 『손자병법』에 견줄 만한 전술 교본도 썼는데, 너무 상세해서 장군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여겨졌다. 전술의 보고였을 뿐 아니라 외국 영토에서 얻은 깊은 민족지적 통찰도 지녀, 폼페이우스 같은 장군들이 여러 해 동안 그를 찾았다. 탐험가이자 전략가, 과학자, 정치가.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고, 그렇기에 진짜 철학자였다. 모든 여행자는 언젠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포시도니오스에게 그 집은 로도스였다. 그곳에서 정치 공부를 실천에 옮겨 최고 공직인 프리타니에 올랐고, 로도스의 통치 평의회를 이끌면서 자기 철학 학교를 키웠다.

어법

- **Some geniuses are content to live entirely in their own heads** : be content to V = ~하는 것에 만족하다. 같은 뜻으로 be content with + 명사도 쓴다.

- **Many philosophies—filled with philosophers who no doubt see themselves as geniuses—subtly encourage this tendency** : 주어 Many philosophies(복수) + 삽입 분사구 → 동사 encourage. see oneself as ~ = 자신을 ~로 여기다. no doubt = 틀림없이.
- **Epicureanism, for instance, which was resurgent in Posidonius's time, encouraged its followers to turn away from the world, to ignore politics** : 계속적 용법 which 삽입. encourage + O + to V, to V(병렬). 변형 → turning away는 오답.
- **legions that had been trained for Marius by his fellow Stoic and student of Panaetius, Rutilius Rufus** : 과거완료 수동(had been p.p.) — 포시도니오스가 마주치기 전에 이미 훈련됨. his fellow Stoic and student of Panaetius = Rutilius Rufus와 동격.
- **intelligence about foreign powers, which he not only provided to generals but later used in his many books** : which = intelligence를 받는 목적격 계속적 용법(provided와 used의 공통 목적어). not only A but B 병렬.
- **a manual on military tactics, a kind of Art of War, that was so detailed that it was considered too advanced for anyone but a general** : 첫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manual). so ~ that = 결과. too ~ for = …에게는 너무 ~한. anyone but = ~외의 누구든.
- **In addition to becoming a repository of military tactics, he also had deep ethnographic insights ~, which generals like Pompey would seek from him** : in addition to의 to는 전치사 → 동명사 becoming. 변형 → to become은 오답. which = insights.
- **Putting his study of politics into practice, he rose ~ to the highest civil position of prytany, presiding over the governing council ~ while building up his philosophical school** : 앞뒤 분사구문(Putting / presiding). put A into practice = 실천에 옮기다. while + -ing = ~하면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tent (a.)	만족하는	satisfied	discontented, dissatisfied
subtly	은근히, 미묘하게	indirectly	openly
resurgent	다시 일어나는	reviving	declining
turn away from	~에 등을 돌리다	reject, ignore	turn toward
resist	저항하다, 버티다	withstand	yield to
governance	통치	administration	—
legion	(로마) 군단	army unit	—
intelligence	첩보, 정보	information	—
tactics	전술	strategy	—
repository	저장소, 보고(寶庫)	storehouse	—
insight	통찰	understanding	ignorance
put ~ into practice	~을 실천에 옮기다	apply	—
preside over	주재하다, 이끌다	chair, lead	—

내용 일치 포시도니오스에게 영향을 준 스토아 = 디오게네스 · 파나이티오스 / 세상을 외면하라고 한 학파 = 에피쿠로스학파 / 군단을 훈련한 사람 = 루틸리우스(마리우스를 위해) / 로도스 최고 공직 = 프리타니. **지칭** ¶4 둘째 문장 which = intelligence about foreign powers / 마지막 문장 which = ethnographic insights / ¶6 which = home(→ Rhodes).

> **한 줄 요약** 포시도니오스는 머릿속 거품을 거부하고 지성을 정치와 군사로 넓혀 탐험가 · 전략가 · 과학자 · 정치가를 겸한 '완전한 인간'이 되었고, 로도스에서 최고 공직에 올랐다.

10-4 마리우스의 임종과 야망의 대가 78쪽 ¶1~¶7

원문 위치 원서 78쪽 ¶1~¶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t was likely his curiosity and desire … that brought him	It ~ that 강조구문
▲	¶1 둘째 문장	seemed to think that his political power made him immortal	make + O + 형용사
▲	¶1 셋째 문장	could not have imagined that	could not have p.p.
▲	¶2 첫 문장	Delusional, tortured …, wearied …, Marius received	형용사·분사 병렬(주어 Marius)
●	¶2 첫 문장	repulsed	반전 후보 → attracted
▲	¶2 첫 문장	repulsed by what he saw	관계대명사 what
▲	¶2 둘째 문장	convinced until the end that he would once again be leading	분사구문 + would be -ing
◆	¶2 셋째 문장	what a far cry this was from	밑줄 의미 + 감탄문 어순 명사절
★	¶3	would you still want it?	요지 후보(성공과 권력의 실체)
●	¶4 첫 문장	insatiable	반전 후보 → satisfied
▲	¶4 셋째 문장	It must have struck Posidonius how easily	가주어 it + how 간접의문문
◆	¶5 셋째 문장	a similar comeuppance	밑줄 의미: 마땅한 응보(We can imagine)
▲	¶6 첫 문장	What linked … was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6 첫 문장	a deficiency of character	빈칸 1순위
▲	¶7 셋째 문장	Luxury, as much as power, rots	A as much as B 주어 → 단수 동사
◆	¶7 넷째 문장	ambition commanded Marius	밑줄 의미: 야망의 노예가 됨

내용

정치적 임무로 기원전 86년 사절로 로마에 온 포시도니오스를 로마 최악의 실력자 마리우스의 임종 자리로 이끈 것은 아마 인간을 연구하려는 호기심과 욕구였을 것이다. 기원전 87년 말 일곱 번째 집정관에 선출된 마리우스는 정치 권력이

자신을 불멸로 만든다고 여기는 듯했고, 포시도니오스가 자신이 보는 마지막 얼굴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망상에 빠지고 어두운 꿈에 시달리며 끝없는 야망과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두려움에 지친 마리우스는 예리한 관찰자 포시도니오스를 맞았고, 포시도니오스는 그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 며칠 뒤 마리우스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정복을 넓히리라 끝까지 확신한 채 죽었다. 스토아인 포시도니오스는, 훗날 플루타르코스가 그랬듯, 삶이라는 항해의 축복을 세며 떠난 안티파트로스의 평화로운 죽음과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았을 것이다. 성공과 권력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그래도 원하겠는가. 그의 후기 글은 야망과 끝없는 욕망의 대가를 직접 본 기록으로 가득하다. 아테네의 참주를 노린 철학자 아테니온은 비슷한 훈련을 받고도 재능을 버리고 군중에 기대 출세하려 했다. 시칠리아 반란의 다모필로스는 "사치와 악행의 노예"였고 노예들 손에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았다. 포시도니오스가 친구 루틸리우스에게 누명을 씌운 탐욕스러운 아피키우스에게도 비슷한 응보를 기대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사례를 잇는 것은 성격의 결함이었다. 그는 조수와 행성을 관찰하듯 참주 지망생과 살인자를 가까이서 살폈고, 과학적 통찰만큼 값진 교훈을 남겼다. 야망을 경계하라. 군중을 피하라. 사치는 권력만큼 썩게 한다. 세네카가 전하는 그의 판정은 이렇다. "마리우스는 군대를 지휘했지만,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했다."

어법

- **it was likely his curiosity and desire to study human beings that brought him to the deathbed of one of Rome's worst strongmen** : It was ~ that 강조구문(주어 his curiosity and desire 강조). likely = 아마(추측). one of + 최상급 + 복수명사.
- **Marius ~ seemed to think that his political power made him immortal** : make + O + 형용사(immortal). 변형 → immortally는 오답(목적격 보어 자리).
- **Delusional, tortured by dark dreams, wearied by a life of endless ambition ~, Marius received Posidonius, a keen observer, who was repulsed by what he saw** : 형용사(Delusional)와 과거분사구 둘이 주어 Marius를 설명(시달린 · 지친). what he saw = 그가 본 것. 변형 → was repulsing은 오답(혐오감을 '느낀' 쪽).
- **Marius died, convinced until the end that he would once again be leading troops in battle** : convinced ~ = 분사구문(being 생략). be convinced that = ~라고 확신하다. would be -ing = 과거에서 본 미래진행.
- **Posidonius must have noted—as Plutarch would—what a far cry this was from the peaceful passing of a philosopher like Antipater** : must have p.p. = ~했음이 틀림없다(추측). what a + 명사 + S + V = 감탄문 어순의 명사절(noted의 목적어). a far cry from = ~와 거리가 먼.
- **It must have struck Posidonius how easily people can be corrupted and cut off from virtue, for here was a man with similar training** : 가주어 it – 진주어 how절(간접의문문, S + V 어순). strike = (생각이) 떠오르다. for = 왜냐하면. here was a man = 도치(here + V + S).
- **What linked all these historical cases together in Posidonius's mind was a deficiency of character** :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was. 변형 → were는 오답. link A together = A를 하나로 묶다.
- **Luxury, as much as power, rots** : 주어는 Luxury(단수), as much as power는 삽입 → rots. 변형 → rot은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mbassy	사절(단), 외교 임무	diplomatic mission	—
strongman	독재자, 실력자	dictator	—
consulship	집정관직	consul's office	—
immortal	죽지 않는	undying	mortal
delusional	망상에 빠진	deluded	clear-headed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r naught	헛되이	in vain	—
repulse	혐오감을 주다	disgust	attract
a far cry from	~와 거리가 먼	very different from	similar to
insatiable	만족할 줄 모르는	unquenchable	satisfied
have designs on	~을 노리다	aim at	—
corrupt (v.)	타락시키다	deprave	purify
comeuppance	마땅한 벌, 응보	just deserts	reward
deficiency	결핍, 결함	lack, shortage	abundance
wary	경계하는	cautious	careless

내용 일치 로마 방문 = 86 BC 사절 / 임종 방문 이유 = 아마 호기심과 인간 연구 욕구(likely) / 마리우스 = 87 BC 말 일곱 번째 집정관 · 며칠 뒤 사망 / 대비 인물 = 안티파트로스 / 아피키우스에 대한 응보 기대는 상상(We can imagine). **지칭** ¶1 셋째 문장 He = Marius / ¶2 첫 문장 what he saw의 he = Posidonius. **밑줄 의미** ambition commanded Marius = 군대를 지휘한 그도 실은 야망에 끌려다녔다.

> **한 줄 요약** 포시도니오스는 불멸을 믿다 망상 속에 죽은 마리우스를 직접 지켜보고, 야망과 사치에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성격의 결함으로 정리했다.

10-5 로도스의 스승 — 키케로와 폼페이우스 79쪽 ¶1 ~ 80쪽 ¶1

원문 위치 원서 79쪽 ¶1 ~ 80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would leave Athens …, convinced that	분사구문(convinced)
◆	¶1 첫 문장	"a mindless mob"	밑줄 의미: 생각 없이 휩쓸리는 군중
●	¶2 둘째 문장	disillusioned	반전 후보 → idealistic
◆	¶2 셋째 문장	a bright light	밑줄 의미: 빛나는 제자 키케로
★	¶2 넷째 문장	In 79 BC, a young Cicero, then twenty-seven	숫자 — 서답형 후보
◆	¶2 마지막 문장	his own brilliant pupil, who in turn	지칭: 스승–제자 관계
▲	¶3 첫 문장	would be spent writing and philosophizing	spend + 시간 + -ing의 수동
▲	¶4 둘째 문장	This is undoubtedly what drew Pompey	관계대명사 what(보어절)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첫 문장	asked him if he had any advice for him	간접의문 if(~인지)
▲	¶5 셋째 문장	advice whose meaning Pompey ... ultimately missed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	¶6 셋째·넷째 문장	virtue ... excellence in the areas that you controlled	빈칸·요지 1순위
▲	¶7 둘째 문장	bowed with his army standards lowered	with + O + 과거분사
●	¶7 둘째 문장	lowered	반전 후보 → raised
▲	¶8	Despite being stricken by	despite + 동명사 수동
★	80쪽 ¶1	This triumph over pain—over oneself	요지·빈칸 후보

내용

기원전 109년 파나이티오스가 죽은 뒤 포시도니오스는 사람들이 그저 "생각 없는 군중"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아테네를 떠났다. 직접 본 것을 생각하면 로마인을 더 낫게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지중해의 물자와 사상이 흐르는 한가운데 있던 로도스는 이 독립적인 사상가에게 완벽한 자리였다. 그가 이 시기에 쓴 역사서와 인간 인격 이론에는 동료 인간에 대한 더 현실적이고 환멸에 찬 평가가 담겨 있다. 그런 시각이 굳어질 무렵 밝은 빛이 찾아왔다. 기원전 79년, 당시 스물일곱 살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재능인 젊은 키케로가 그에게 배우러 로도스에 온 것이다. 파나이티오스에게 포시도니오스가 있었듯 포시도니오스에게도 뛰어난 제자가 생겼고, 키케로는 글에서 스승을 다정하게 "우리 포시도니오스"라 불렀다. 스승 파나이티오스처럼 그는 귀족적 견해를 지닌 '엘리트'였지만, 거품 속에 사는 오늘날의 엘리트와 달리 군중과 포퓰리즘에 대한 의심을 직접 경험에서 얻었다. 세상과 전쟁을 본 경험에서 나온 그의 철학은 당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었고, 떠오르던 장군 폼페이우스도 그 때문에 로도스로 강의를 들으러 왔다. 기원전 66년 킬리키아 해적 원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는 폼페이우스에게 포시도니오스는 호메로스를 인용해 "최고가 되어 늘 남보다 뛰어나라"고 했다. 그러나 '거짓 영광에 대한 미친 사랑'을 지닌 폼페이우스는 그 미묘한 도덕적 조언의 뜻을 끝내 놓쳤다. 스토아에게 '최고'는 전투의 승리도 영예의 축적도 아닌 덕, 곧 생각 · 행동 · 선택처럼 스스로 통제하는 영역에서의 탁월함이었다. 그래도 폼페이우스는 공손한 학생으로 남았다.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승리 뒤 기원전 62년, 그는 다시 찾아와 철학자의 문 앞에서 군기를 낮추고 절했다. 심한 관절염과 통풍에 시달리던 포시도니오스는 병상에서 오직 명예로운 것만이 선하다는 강의를 했고, 신음 속에서도 고통이 악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통을 이기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가 말한 '최고'였고, 더 인상적이게도 그는 그렇게 살았다.

어법

- **Posidonius would leave Athens for the last time, convinced that the people had become simply "a mindless mob"** : convinced that ~ = 분사구문(그가 '확신한' 상태). had become = 대과거(떠나기 전에 이미 군중이 됨). 변형 → convincing은 오답.
- **In 79 BC, a young Cicero, then twenty-seven years old, ~ would make his way to Rhodes to study under the great man** : then twenty-seven years old = 동격 삽입(당시 27세).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make one's way to = ~로 가다. to study = 목적.
- **The rest of his years would be spent writing and philosophizing, and of course teaching** : spend + 시간 + -ing의 수동태(시간이 주어). 변형 → to write는 오답.

- **This is undoubtedly what drew Pompey, the great general just then rising to power, to Rhodes to attend Posidonius's lectures** : what = the thing which(보어절의 주어). draw A to B = A를 B로 끌어당기다. rising to power = general을 꾸미는 현재분사.
- **Pompey visited Posidonius and in a private audience asked him if he had any advice for him** : ask + O + if절(~인지) = 간접의문문(S + V 어순). 앞의 him · he = Posidonius, 끝의 him = Pompey.
- **It was subtle moral advice whose meaning Pompey, with what Posidonius would later call "his insane love of a false glory," ultimately missed** : whose meaning = 그 조언의 뜻(소유격 관계대명사, missed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옴). what ~ call = ~가 …라고 부른 것.
- **Pompey ~ bowed with his army standards lowered at the philosopher's door** : with + O + 과거분사(군기가 '낮춰진' 채). 변형 → lowering은 오답.
- **Despite being stricken by a severe case of arthritis and gout ~, Posidonius gave Pompey a private lecture from bed on why only the honorable is good** : despite + 동명사 수동(being stricken). 변형 → Despite he was stricken은 오답(전치사 뒤 절 불가). give A B(4형식). on why ~ = ~에 관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ndless	생각 없는	thoughtless	thoughtful
isolated	고립된	remote, cut off	connected
perch	(높은) 자리, 횃대	vantage point	—
disillusioned	환멸을 느낀	disenchanted	idealistic
appraisal	평가	assessment	—
once-in-a-generation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exceptional	ordinary
aristocratic	귀족적인	elitist	democratic
out of touch	현실을 모르는	unaware	in touch
audience	(공식) 접견, 알현	formal meeting, reception	—
subtle	미묘한, 은근한	delicate	obvious
standard (n.)	군기, 깃발	banner, flag	—
stricken	(병에) 시달리는	afflicted	unaffected
triumph	승리	victory	defeat

내용 일치 아테네를 마지막으로 떠난 때 = 109 BC 파나이티오스 사후 / 키케로 = 79 BC · 27세 · "우리 포시도니오스" / 폼페이우스 첫 방문 = 66 BC 해적 원정 전 · 재방문 = 62 BC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 뒤 / 조언의 출처 = 호메로스 / 병 = 관절염과 통풍. **지칭** ¶5 첫 문장 asked him if he had any advice for him — him · he = Posidonius, 끝의 him = Pompey / ¶2 who in turn = Cicero.

> **한 줄 요약** 로도스에서 키케로를 제자로 둔 포시도니오스는 폼페이우스에게 '최고가 되라'고 조언했고, 통풍의 고통 속에서도 고통은 악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이기는 '최고'를 몸소 살았다.

10-6 영혼 안의 내전, 살아 있는 존재의 비유 80쪽 ¶2~¶5

원문 위치 원서 80쪽 ¶2~¶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첫 문장	the mind seeks wisdom and what is truly good, whereas	what절 목적어 + 대조 whereas
●	¶2 첫 문장	lower parts	반전 후보 → higher
▲	¶2 둘째 문장	Good habits and lifestyle—set in place by the mind—are	과거분사 삽입 + 복수 동사
★	¶2 둘째 문장	checks against these irrational parts	빈칸 후보(습관 = 견제 장치)
▲	¶2 셋째 문장	This idea that part of us is rational … was	동격 that절 + 단수 동사
●	¶2 셋째 문장	radical departure	반전 후보 → moderate
◆	¶3 첫 문장	the Civil Wa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our souls	밑줄 의미: 내면의 두 부분의 싸움
▲	¶3 둘째 문장	what matters … is which side we choose to turn ourselves over to	what절 주어 + 간접의문문 보어
▲	¶3 셋째 문장	being led in no respect by	수동 분사구문 + in no respect
▲	¶3 넷째 문장	a feat that … could not seem to achieve, despite	목적격 관계대명사 + despite + 명사
▲	¶4 첫 문장	whether you're a genius or a conqueror	양보의 whether A or B
●	¶4 둘째 문장	far more impressive than	반전 후보 → less
▲	¶5 첫 문장	had attempted to divide …, using the analogy of	과거완료 + 분사구문
★	¶5 둘째 문장	a living being	빈칸·제목 1순위
▲	¶5 둘째 문장	physics is blood and flesh, logic the bones and sinews	공통 동사 is 생략
◆	¶5 셋째 문장	meant to be lived as a human being	밑줄 의미: 몸처럼 하나로 살아내는 철학

내용

포시도니오스는 정신이 지혜와 참된 선을 구하는 반면, 영혼의 낮은 부분은 (폼페이우스처럼) 권력과 승리의 영광,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구한다고 보았다. 정신이 자리 잡게 한 좋은 습관과 생활 방식은 이 비이성적인 부분을 견제한다. 우리의 일부는 이성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자아 전체가 이성적이라고 오래 주장해 온 스토아로서는 꽤 급진적인 이탈이었다. 그러나 훗날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영혼의 '북부'와 '남부' 사이의 내전이라 부른 이 내면의 싸움은

조금이라도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로 들린다. 우리 안에는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자신을 내맡기느냐다. 포시도니오스는 우주의 진리와 질서를 관조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북돋우며,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조금도 끌려가지 않도록 삶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마리우스와 술라, 아테니온, 그리고 안타깝게도 폼페이우스조차 온갖 술수와 군사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듯한 일이다. 천재든 정복자든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토아는 이 일을 해낸다면 빛나는 글이나 화려한 승리보다 훨씬 인상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고 믿었다. 이전 스토아는 철학을 밭(물리학)과 열매(윤리학)와 울타리(논리학)가 있는 농장이나 과수원에 비유해 셋으로 나누려 했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에 따르면 포시도니오스는 달랐다. 철학의 부분들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데 식물은 열매와 다르고 담은 식물과 떨어져 있으니, 철학은 오히려 살아 있는 존재에 비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학은 피와 살, 논리학은 뼈와 힘줄, 윤리학은 영혼이다. 철학은 인간으로서 살아내는 것이므로 스토아에게도 완벽한 비유다.

어법

- **Posidonius held that the mind seeks wisdom and what is truly good, whereas the lower parts of the soul seek power and the glory of victory** : hold that = ~라고 주장하다. what is truly good = wisdom과 병렬된 목적어. whereas = 반면에. 주어 parts(복수) → seek.
- **Good habits and lifestyle—set in place by the mind—are checks against these irrational parts of the soul** : set in place by ~ = 과거분사 삽입(정신이 '자리 잡게 한'). 주어 A and B → are. check = 견제 장치(명사).
- **This idea that part of us is rational and part of us is not was a fairly radical departure for the Stoics, who had long held that the whole self was rational** : 동격 that절(idea의 내용) 뒤 본동사 was(주어 This idea 단수). part of us is not = rational 생략. had long held = 대과거.
- **what matters in life is which side we choose to turn ourselves over to** : what절 주어(단수) → is. 보어는 간접의문문 which side + S + V. turn oneself over to = ~에 자신을 넘기다(전치사 to가 끝에 남음).
- **"to live contemplating the truth and order of the universe and promoting it as much as possible, being led in no respect by the irrational part of the soul"** : contemplating · promoting = 동시 동작 분사 병렬. being led = 수동 분사구문. in no respect = 전혀 ~않다.
- **This was a feat that Marius and Sulla, Athenion and, sadly, even Pompey could not seem to achieve, despite all their cunning or military might**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achieve의 목적어). despite + 명사구(절 불가). 변형 → despite of는 오답.
- **If you can do it, though, the Stoics believed, you will produce something far more impressive than brilliant writing or splendid victories** : 조건의 if절 + 주절 will. the Stoics believed = 삽입절. -thing + 형용사(후치). far = 비교급 강조.
- **he claimed the simile for philosophy should rather be a living being, where physics is blood and flesh, logic the bones and sinews, and ethics the soul** : claimed (that) 생략. where = 관계부사(그 안에서는). logic (is) ~, ethics (is) ~ — 반복되는 동사 is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odily	육체의	physical	mental
check (n.)	견제(장치)	restraint, curb	—
irrational	비이성적인	unreasonable	rational
radical	급진적인, 근본적인	drastic	moderate
departure	이탈, 벗어남	deviation	adherence
a shred of	아주 조금의	a bit of	—
self-awareness	자기 인식	self-knowledg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template	관조하다, 숙고하다	reflect on	ignore
feat	위업	achievement	failure
cunning	교활함, 술수	craftiness	naivety
analogy	비유, 유추	comparison	—
inseparable	떼어 놓을 수 없는	indivisible	separable
sinew	힘줄	tendon	—

내용 일치 정신 = 지혜 · 참된 선 / 낮은 부분 = 권력 · 승리의 영광 · 육체적 쾌락 / 견제 장치 = 좋은 습관과 생활 방식 / 초기 스토아 = 자아 전체가 이성적 / 정원 비유: 밭 = 물리학 · 열매 = 윤리학 · 울타리 = 논리학 / 생명체 비유를 전한 사람 =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밑줄 의미** the Civil Wa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our souls = 이성과 비이성이 내 안에서 벌이는 싸움 / a living being = 부분들을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나의 몸.

> **한 줄 요약** 포시도니오스는 영혼 안에 이성과 비이성이 함께 있어 습관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고, 철학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존재에 비유했다.

10-7 우주의 한 조각, 그리고 남은 이름 80쪽 ¶6 ~ 81쪽 ¶4

원문 위치 원서 80쪽 ¶6 ~ 81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 둘째 문장	saw the entire cosmos as a sentient, living being in which	see A as B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6 둘째 문장	interconnected (sympatheia)	빈칸 1순위
●	¶6 셋째 문장	atheism … a strong sense of a creator	반전 후보(대비 쌍)
▲	¶6 셋째 문장	a providential fate governing the universe	현재분사 후치 수식
◆	¶6 넷째 문장	on the same team	밑줄 의미: 모두가 한 몸(4장 연결)
●	¶6 다섯째 문장	none of us are entirely self-sufficient	반전 후보 → all of us
▲	¶6 여섯째 문장	Each of us has been given a role	each of + 복수 → 단수 동사
▲	¶6 마지막 문장	It was God … that ran through this organism	It ~ that 강조구문
▲	¶7 둘째 문장	Spanning … and representing …, his histories picked up	분사구문 병렬
★	¶7 둘째 문장	fifty-two volumes … a full third	숫자 — 서답형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첫 줄	ranged from those on fate … to others dealing with	range from A to B + 현재분사
●	81쪽 ¶1 둘째 문장	criticize	반전 후보 → praise
▲	81쪽 ¶1 셋째 문장	what author wouldn't have been satisfied to still be cited	수사의문 + 수동 to부정사
◆	81쪽 ¶2 마지막 문장	a small part of a cosmic universe	밑줄 의미: 스스로 인정한 자기 자리
▲	81쪽 ¶3 둘째 문장	Posidonius least of all	least of all = 누구보다도 ~않다
▲	81쪽 ¶4	imagine him having learned to depart	imagine + O + 완료 동명사

내용

크리시포스와 제논을 토대로 포시도니오스는 이 생각을 더 밀고 나갔다. 그는 우주 전체를 만물이 서로 연결된(심파테이아) 감각 있는 생명체로 보았다. 과학 연구는 때로 사람을 무신론으로 이끌지만, 포시도니오스의 경우 조수 실험과 별 관측은 창조자가 있다는, 곧 섭리에 따른 운명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강한 믿음을 주었다. 그는 크리시포스의 '밀치지 않기' 규칙을 넘어 모든 인간이 말 그대로 같은 팀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모두 우주적 공감으로 묶여 있고, 누구도 완전히 자족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다. 우리는 각자 이 큰 몸에서 손가락, 피부 세포, 간 같은 역할을 받았고 서로 협력하며 긴장 속에 존재한다. 이 유기체를 관통하는 것은 신, 곧 우주의 영혼 같은 프네우마라고 그는 생각했다. 말년에 그는 거의 모든 힘을 위대한 역사서를 완성하는 데 쏟았다. 52권, 전체 저술의 꼬박 3분의 1에 이르는 역사서는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에서 시작해 기원전 86년 술라의 아테네 약탈까지 이어졌다. 스트라본은 그가 폼페이우스만 다룬 별도의 책도 쓰고 있었다고 전한다. 알려진 저술은 운명과 윤리부터 감정과 스토아의 영원한 적인 분노, 슬픔과 의무, 그리고 바다 · 날씨 · 지구 일주에 관한 과학서에 이른다. 지금은 단편만 남아 대부분 잊혔지만 그는 당대와 그 뒤 오랫동안 우뚝한 인물이었다. 수세기 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그의 이름을 들어, 비록 점성술 사용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가장 과학적인 스토아에게 응답했다. 죽은 지 약 500년 뒤에, 그것도 성인에게 인용된다면 어느 작가가 만족하지 않겠는가. 시리아 · 아테네 · 로마 · 로도스에서 살며 알려진 세계 거의 전부를 여행했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권력자에게 조언한 그는 스스로 인정했듯 우주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인상적인 기여자였다. 그러나 천재도 결국 잊히고 모두 죽는다. 어떤 스토아도 이를 반박하지 않을 것이고, 포시도니오스는 더욱 그렇다. 기원전 51년 그는 여든네 살에 평화롭게 죽었다. 기록은 없지만, 그가 마리우스의 끔찍하고 비천한 최후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는 법을 배웠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어법

- **He saw the entire cosmos as a sentient, living being in which all things are interconnected** : see A as B.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all things are interconnected in the being). 변형 → in that은 오답.
- **his experiments with the tides and his observations of the stars had given him a strong sense of a creator—that there was a providential fate governing the universe** : give + I.O + D.O(4형식, 과거완료). 대시 뒤 that절 = a strong sense의 내용(동격). governing = fate를 꾸미는 현재분사.
- **none of us are entirely self-sufficient or autonomous** : none of + 복수 대명사 뒤에는 단수 · 복수 동사 모두 쓴다(원문은 are). 아무도 '완전히' 자족적이지는 않다는 뜻.
- **Each of us has been given a role in this large body** : each of + 복수 대명사 → 단수 동사 has. give A a role의 수동(현재완료). 변형 → have been given은 오답.

- **It was God, he thought, that ran through this organism as pneuma** : It was ~ that 강조구문(God 강조). he thought = 삽입절. as = ~로서.
- **Spanning fifty-two volumes and representing a full third of his entire literary output, his histories picked up at Carthage in 146 BC ~ and continued up to Sulla's sack of Athens in 86 BC** : 분사구문 두 개 병렬(주어 his histories). a full third of = ~의 꼬박 3분의 1. pick up = (이야기를) 시작하다.
- **what author wouldn't have been satisfied to still be cited some five hundred years after his death?** : 수사의문문(= 어느 작가라도 만족했을 것이다). would have p.p. = 가정. to be cited = 수동 to부정사(인용'되는'). some + 숫자 = 약.
- **we can imagine him having learned to depart from the world a happier and more grateful man** : imagine + O(him) + 완료 동명사(having p.p. = 앞선 일). a happier ~ man = 떠날 때의 주어 상태(보어). we can imagine = 추측이지 기록이 아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ntient	감각(지각)이 있는	conscious	insentient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linked	isolated
atheism	무신론	disbelief	theism
providential	섭리에 의한	divinely ordained	—
autonomous	자율적인, 독립된	independent	dependent
collaboration	협력	cooperation	competition
span (v.)	~에 걸치다	cover, extend over	—
fragment	단편, 조각	piece, scrap	whole
household name	누구나 아는 이름	celebrity	unknown
cite	인용하다	quote, mention	ignore
admission	인정, 시인	acknowledgment	denial
mortal	죽을 운명의	perishable	immortal
ignoble	비천한, 수치스러운	dishonorable	noble

내용 일치 역사서 = 52권 · 저술의 3분의 1 · 146 BC 카르타고(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 86 BC 술라의 아테네 약탈 / 폼페이우스 단독 저술을 전한 사람 = 스트라본 / 아우구스티누스 = 『신국론』에서 점성술 사용을 비판 · 사후 약 500년 / 사망 = 51 BC · 84세 · 평화롭게. **밑줄 의미** on the same team = 경쟁자조차 한 몸의 서로 다른 기관 / a small part of a cosmic universe = 스스로 인정한 우주 속 자기 자리.

> **한 줄 요약** 포시도니오스는 우주를 만물이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고, 52권의 역사서와 수많은 저술을 남긴 뒤 언젠가 잊힐 필멸의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84세에 평화롭게 죽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10 POSIDONIUS]

범위	Posidonius the Genius (원서 PDF 75~81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thinkers care about nothing but their proofs and arguments, but the Stoics were never like that. Posidonius shows the curiosity that marked the school: he was fascinated by the beautiful, complicated world around him. Like Zeno before him, he learned under the open sky, among the stars, and in the crowded market. The Stoics taught that wisdom can be found anywhere, so a wise person should take an interest in everything. Each new experience teaches us more—and, strangely, the more modest we become when we see how much knowledge still lies ahead of us.

① Philosophers should focus on proofs rather than on experience.
② We should be curious about everything, since wisdom can be learned from everything.
③ Travel is the only reliable way to gain true knowledge.
④ Knowing more makes people more confident in their own judgment.
⑤ Children learn better outdoors than adults do.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arlier Stoics liked to picture philosophy as an orchard or a farm. Physics was the field, ethics the fruit, and logic the fence that surrounded them. Posidonius found this image misleading. According to Sextus Empiricus, he pointed out that the parts of philosophy cannot be pulled apart, whereas a fence stands apart from the plants and the plants are different from their fruit. A better comparison, he argued, would be a living creature. Physics is its blood and flesh, and logic forms its bones and sinews, while ethics is its soul. The image suits the Stoics well, for their philosophy was meant to be lived by a human being.

① From Orchard to Body: A New Picture of Philosophy
② Why Logic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Philosophy
③ How Ancient Farmers Shaped Greek Thought
④ The Soul as a Fence Against Pain
⑤ Sextus Empiricus: The Critic Who Rejected the Stoic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66 BC, before setting out against the Cilician pirates, Pompey met Posidonius in private and asked whether he had any advice. Posidonius answered with a line from Homer: "Be the best and always superior to others." The general, whose craving for false glory Posidonius would later call insane, never really grasped the point. To a Stoic, being the best had nothing to do with winning battles, and being superior did not mean piling up honors. Success in outward affairs was pleasant when fate allowed it, but it was not the goal. The goal was virtue—excellence in the things that truly lie within our power: our thoughts, our actions, and our choices.

① True excellence lies in mastering one's own thoughts, actions, and choices.
② A great leader must win battles to prove his superiority.
③ Advice from poets is more useful than advice from philosophers.
④ External success is worthless and should always be avoided.
⑤ Glory is the natural reward of a virtuous life.

4. 밑줄 친 ambition commanded Mariu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osidonius did more than observe the tides and the paths of the planets. He also studied people, examining men who longed to be tyrants and murderers at close range. Long before Marcus Aurelius urged himself to inspect the so-called pleasures of tyrants, Posidonius had actually stood at Marius's bedside. His lessons rivaled his scientific findings in value: be wary of ambition, keep away from the mob, and remember that luxury corrupts as surely as power does. Seneca preserved his verdict on the old general: "Marius commanded armies, but ambition commanded Marius."

① Marius was a skilled leader whose troops obeyed him without question.
② Marius, who ruled others, was himself ruled by his desire for power.
③ Marius finally gave up his ambition at the end of his life.
④ Marius's soldiers were more ambitious than their commander.
⑤ Marius was forced by others to fight wars he did not want.

5. 밑줄 친 the space between our ea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osidonius was born in 135 BC into a leading family in present-day Syria, at a time of uneasy plenty. His homeland lacked strong leaders and was pushed around by powerful foreign states, and from close up he could watch the dangers of excess and greed. Life there taught him early that, in a world we cannot predict, we can truly govern only ourselves; the space between our ears, he learned, is the one territory we can conquer with any certainty. Later he would complain that the Syrians, freed from worrying about life's necessities, did little but feast, and that their gymnasiums had turned into baths. Good times, it seems, rarely produce great people.

① the distance between a ruler and his people
② our own mind, the only thing we can truly control
③ the gap between what we hear and what we say
④ the borders of a homeland ruled by foreign powers
⑤ the knowledge we gain from listening to teacher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Pompey loved glory, yet he remained a respectful student. In 62 BC, at the peak of his power, the general came back to Rhodes, lowered his military standards, and bowed at the philosopher's door. Posidonius was then suffering badly from arthritis and gout, but ① he did not send ② his visitor away. Lying in bed, ③ he gave a private lecture arguing that nothing but what is honorable is truly good, and, groaning with pain, he insisted that ④ he would never grant that pain is an evil. Perhaps the general understood, in ⑤ his own way, what "best" meant, even though he never managed to live by it.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Like many earlier Stoics, Posidonius left his birthplace as a young man—at eighteen or twenty—and headed for Athens. He reached the city at some point from 117 to 115 BC, when the Stoa Poikilē was firmly controlled by Panaetius, an elderly man who towered over both the school and the empire. Roman fathers—senators, generals, even kings of faraway provinces—had started having their children taught by philosophers, and many were sending their brightest children to Panaetius in Athens. After his years in Athens, he spent a large part of his life studying in far-off lands: Italy and Sicily, Greece and Dalmatia, the Near East and North Africa.

① 포시도니오스는 서른 살이 넘어 고향을 떠났다.
② 그가 아테네에 왔을 때 스토아 포이킬레는 젊은 파나이티오스가 이끌고 있었다.
③ 로마의 지배층은 자녀를 철학자에게 교육받게 하기 시작했다.
④ 그는 아테네에 온 뒤 평생 아테네를 떠나지 않았다.
⑤ 그가 공부한 곳에는 북아프리카가 포함되지 않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Late in life, Posidonius devoted himself almost entirely to finishing his great histories. They filled fifty-two volumes, a full third of everything he wrote, and ran from 146 BC, with Scipio Aemilianus at Carthage, to 86 BC, when Sulla sacked Athens. According to Strabo, he was also working on a separate book entirely about Pompey. His other works dealt with fate and ethics, with the emotions, and with anger, which the Stoics treated as a constant enemy; he also wrote about duty and grief and produced many scientific books on the oceans and the weather. Over his long life he lived in four places—his native Syria, then Athens, Rome, and Rhodes—journeying over nearly the entire known world.

① 역사서는 52권으로 전체 저술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② 역사서는 기원전 146년부터 기원전 86년까지를 다루었다.
③ 스트라본에 따르면 그는 폼페이우스에 관한 별도의 책을 쓰고 있었다.
④ 그는 분노와 슬픔에 관해서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⑤ 그는 시리아·아테네·로마·로도스에서 살았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s he traveled, Posidonius came to be known as the finest polymath since Aristotle. In Spain he measured the tides, and in Gaul he studied the Celts, ① recording everything he observed. Whatever the field, he was a sharp observer who loved data. He calculated the earth's circumference and how large and how far away the sun and moon were, and he built models of the globe and of the solar system ② known at the time. The only thing holding back his genius ③ was the rough instruments of his era, ④ which frequently distorted his results. Even so, his curiosity greatly expanded ⑤ that people of his time understood about the univers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Panaetius died in 109 BC, Posidonius left Athens for good, (A) [convincing / convinced] that its people had become nothing but a mindless mob. He settled on Rhodes, an island that was remote and yet central to the trade of the Mediterranean. There, in 79 BC, a gifted young Roman named Cicero, then twenty-seven, came to study with him. Posidonius's remaining years were spent (B) [to write / writing] and teaching. Like Panaetius, he held aristocratic views, but unlike many elites today, (C) [who / which] are surrounded by people just like themselves, he formed his distrust of the mob from firsthand experience.

	(A)	(B)	(C)
①	convincing	to write	who
②	convinced	writing	which
③	convinced	writing	who
④	convincing	writing	which
⑤	convinced	to write	who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According to Posidonius, the mind pursues wisdom and genuine goodness, while the ① lower regions of the soul crave power, victorious glory, and physical pleasure. Sound habits, which the mind sets up, serve as ② checks on these unreasoning drives. Earlier Stoics had always insisted that the entire self was governed by reason, so his idea was a ③ radical break with tradition. Still, anyone with a bit of self-knowledge can feel this inner civil war. Rival forces live inside each of us, and what counts is the side to which we ④ surrender ourselves. Winning this war is enormously difficult; even Pompey seemed unable to do it. Yet anyone who manages it creates something far ⑤ less impressive than dazzling books or glorious victori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osidonius built on the ideas of Zeno and Chrysippus and carried them further. He saw the whole cosmos as a single living, feeling being in which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what the Stoics called sympatheia. Going beyond Chrysippus's rule against shoving a competitor, he believed that all human beings are _____. Each of us plays a part in one great body—one of us may be a finger, another a liver, another a single skin cell—and none of us is completely self-sufficient. Through this whole body, he thought, God flowed like a soul.

① quite literally on the same team
② free to compete in any way they like
③ entirely self-sufficient and autonomous
④ rivals who must never cooperate
⑤ separate from the living cosmo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Now, however, he was delusional, tormented by dark dreams, and worn out by endless ambition and the fear that his whole life had been wasted.

After years of travel, Posidonius settled in Rhodes and rose to its highest office. (①) In 86 BC his political duties took him to Rome as an envoy, but it was probably his wish to study people that led him to the bedside of the dying Marius. (②) In late 87 BC, Marius had been elected consul for the seventh time and seemed to believe that his power made him immortal. (③) Such was the broken man whom Posidonius, a sharp observer, now met, and the sight repelled him. (④) Days later Marius died, still sure that he would lead troops into battle again. (⑤) How unlike the calm death of Antipater, who spent his last moments counting up his life's blessing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e Epicureans, whose school was reviving in Posidonius's day, urged their students to withdraw from politics and the noise of the world. ① Posidonius, influenced by Stoics such as Diogenes and Panaetius, refused to stay in that bubble. ② His travels brought him into frequent contact with Roman legions, which his fellow Stoic Rutilius Rufus had trained for Marius. ③ He examined troop movements, past wars, and local customs, and even gathered intelligence on foreign powers for generals. ④ Rome's roads, built of layered stone, allowed merchants to carry goods quickly across the empire. ⑤ He even wrote a military manual so detailed that only a general was thought able to use i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works of his later years, Posidonius recorded again and again what he had personally seen of the toll that ambition and greed take.

(A) In another account, about a Sicilian uprising, he described a man named Damophilus as a slave to luxury and wrongdoing, and he reported, almost with satisfaction, that Damophilus was killed, violently and painfully, by his own slaves.

(B) We can imagine him hoping for a similar punishment for Apicius, the greedy man who had brought a false charge against his friend Rutilius. What tied all of these cases together, in his mind, was a flaw of character.

(C) In one historical work, for example, he writes of Athenion, a philosopher who hoped to become tyrant of Athens and who threw away his talent, relying on the mob to advance himself.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ly fragments of Posidonius's great works survive, and few people know his name today. Yet in his lifetime and long after it he stood as a giant. Centuries later, Saint Augustine named him in the City of God and answered the most scientific Stoic of all, even if only to attack his use of astrology. Still, the greatest minds fade from memory in the end, and every one of them must die. No Stoic would quarrel with this fact, and Posidonius least of all. He died peacefully in 51 BC at eighty-four, having perhaps learned to leave the world more happily and gratefully than Marius had.

→ Although Posidonius is little known today, his influence (A) _____ for centuries, and he calmly (B) _____ the fact that even a genius is mortal.

① lasted …… accepted
② faded …… denied
③ lasted …… resisted
④ faded …… accepted
⑤ grew …… feared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8)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Posidonius was born in 135 BC in Apamea, Syria. As a young man he studied in Athens under the Stoic Panaetius and then traveled widely before making his home in Rhodes. On a mission to Rome, he visited the deathbed of Marius, the seven-time consul. In 79 BC the young Cicero, then twenty-seven, came to Rhodes to study under him, and later the general Pompey visited him twice. Though suffering from gout, Posidonius refused to admit that pain was an evil. He compared philosophy to a living being: physics was its blood and flesh, logic its bones and sinews, and ethics its soul. His histories filled fifty-two volumes, and he died in 51 BC at eighty-four.

<QUIZ>

(1) In what year was Posidonius born?
Answer for (1): _____

(2) Where did Posidonius make his home after his travels?
Answer for (2): _____

(3) Who was Posidonius's teacher in Athens?
Answer for (3): _____

(4) Whose deathbed did Posidonius visit in Rome?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Posidonius admitted that pain was an evil?
Answer for (5): _____

(6) Who came to Rhodes in 79 BC to study under Posidonius?
Answer for (6): _____

(7) How many volumes did Posidonius's histories fill?
Answer for (7): _____

(8) In Posidonius's comparison, which part of a living being is ethics?
Answer for (8): _____

<보 기>

A. Cicero	N. blood and flesh
B. 51 BC	O. Rhodes
C. Athens	P. 135 BC
D. Sulla	Q. Rutilius
E. True	R. 117 BC
F. the bones and sinews	S. Antipater
G. Chrysippus	T. fifty-two
H. the soul	U. Rome
I. Pompey	V. twenty-seven
J. eighty-four	W. Seneca
K. Apamea	X. Zeno
L. Panaetius	Y. Marius
M. False	Z. seve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는 불안한 풍요의 시대에 명문가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스토아였다. (과거분사 후치 수식 born / yet another)

02 우리가 정말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the only thing (that) S V + 단수 동사)

03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철학자에게 교육받게 하기 시작했다. (사역 have + O + p.p.)

04 경험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겸손해진다.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humbled)

05 그의 재능을 가로막은 유일한 제약은 조잡한 측정 도구였다. (주어 constraint(단수) + was / crude)

06 그 교본은 너무 상세해서 장군이 아닌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여겨졌다. (so ~ that / too ~ for anyone but)

07 그를 임종 자리로 이끈 것은 아마 그의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It was ~ that 강조 / likely)

08 이 모든 사례를 하나로 묶은 것은 성격의 결함이었다. (what절 주어 + was / link together)

09 폼페이우스는 포시도니오스에게 자신을 위한 조언이 있는지 물었다. (ask + O + if절 / advice)

10 폼페이우스는 군기를 낮춘 채 철학자의 문 앞에서 절했다. (with + O + p.p. / standards)

11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자신을 내맡기느냐이다. (what절 주어 + 간접의문문 보어 / turn oneself over to)

12 우리 각자는 이 큰 몸에서 하나의 역할을 받았다. (each of us + 단수 동사 / 현재완료 수동)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포시도니오스의 출생·사망 연도 / 출신	
태어난 시대를 부른 말 / 그 시대의 역할	
어린 시절의 이른 교훈	
시리아의 풍요에 대한 회고 / 참주들을 묘사한 말	
고향을 떠난 나이 / 아테네 도착 시기 / 당시 수장	
파나이티오스가 한 세대 전 로마에서 가르친 사람	
포시도니오스가 공부한 먼 곳	
그의 평판 / 조수를 잰 곳 / 켈트족을 조사한 곳	
잰 것 · 만든 것 / 유일한 제약	
세네카가 묘사한 그의 삶	
외면을 권한 학파 / 영향을 준 스토아 둘	
마리우스의 군단을 훈련한 사람 / 포시도니오스가 쓴 교본	
로도스에서 오른 최고 공직 / 한 일	
로마에 간 해·이유 / 마리우스의 7번째 집정관 선출	
마리우스의 죽음과 대비된 철학자	

항목	답
야망의 사례 세 사람 / 공통점	
세 가지 교훈 / 세네카가 전한 판정	
아테네를 떠난 때 / 사람들을 부른 말	
키케로가 온 해 · 나이 / 스승을 부른 말	
폼페이우스의 두 방문 / 첫 방문의 조언	
생명체 비유 / 역사서 권수와 범위 / 사망 나이	

4-3. 통합 사고 문제 — 9장과 10장을 잇는 자리

문제

9장에서 루틸리우스가 마리우스와 맞서다 누명을 쓰고 추방되었지만 원망 없이 일을 계속하며 자신이 통제하는 것은 자기 성품뿐임을 알았던 일(72쪽 ¶3~¶5, 73쪽 ¶4 · ¶6, 74쪽 ¶4)과, 10장에서 일곱 번이나 집정관이 된 마리우스가 망상 속에 죽는 것을 포시도니오스가 지켜보고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했다'고 판정한 일(78쪽 ¶1~¶2, ¶6~¶7)을 비교하여, 두 장이 성공과 권력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9장 또는 10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더 중요한 것: Both chapters show that a person's _____ matters more than success or power.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